



**기묘년 한해를 보내며
문제 해결은 내부로부터**

토기를 상징했던 한해가 한달후 서산으로 해가 지면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서게 되었다.

술한 사연을 머금은 금년 한해는 양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지난 외환위기 당시 위기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켜 가까스로 가격 폭락의 위기를 넘긴 이후 서서히 생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월하더니 급기야 생산비의 70%선까지 출하가가 하락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금년까지 양계농가들은 생산량 감소로 다소 가격이 안정되어 차입금 상환이 밀리지 않도록 근근히 현상유지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양계산물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여 저가가 계속된다면 도산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규모 확대나 생산과 출하가 농가의 자율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양계인들이 일체감을 갖지 못하고 저마다 어려움 극복을 생산량을 증가시켜 해결하려는 의식이 팽배해진다면 결과는 더욱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한다.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도 쿼터(Quota)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지만 수입이 개방

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도 접목시킬 수 있는 대안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생산이 안정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결과는 그리 낙관적일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계인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수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비량에 접근할 수 있는 사육량 조절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도록 교훈을 가져다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적으로 어지럽게 얽혀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내는 일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는가를 냉철히 분석한다면 해결책이 보인다.

새천년을 목전에 두고 그간 소홀히 했던 양계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저 막연히 새로운 21세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부딪치고,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정보를 얻는 변화된 모습을 보자. 세미나를 통한 순회 강습에서 지역별 월례회로 변모하더니 다시 전화가 보급되어 육성으로 정보 파악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팩스가 등장하여 앉아서 동시에 원본과 같은 정보를 접하다가 드디어 인터넷으로 이어져 원하는 시간과 정보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사이버시대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던가.

이처럼 우리 양계인들은 20세기에 어려웠던 점을 잘 헤집어 보면 21세기에는 인터넷보다 더 편리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계업은 양계인들이 함께 가꾸어야 할 공

원과도 같다. 양계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공원을 구경하는 행인과도 같다. 양계인들이 공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행인들의 눈길을 끌어 발길을 돌리게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을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

소비정체, 생산증가 끝은 어디에 기반약화 우려, 새천년엔 개선을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따라서 먹거리 또한 다양화된다. 개발도상국일 때까지는 채식보다 육식을 선호하게 마련이지만 일단 국민 1인당 GNP가 1만달러를 넘게 되면 식생활 패턴도 달라지게 된다. 대개 양계업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확대폭이 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소비자는 선진국 국민 수준을 모방하고, 생산자는 생산증가에 치중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는 다양해진 먹거리 때문에 과거와 같이 양계산물을 먹을 기회가 적어 소비는 정체하게 마련이다.

이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비축진 운동이다.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여 양계산물을 먹게 유도한다거나 양계산물이 영양학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합리성이 있어 선택을 하도록 교육과 신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즈음 채란인이나 육계인, 그리고 종계인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비해 양계업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결국 종전의 감(感)으로는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변화된 셈이다. 이를 잘 인

지해야 한다. 국내 상황 뿐만 아니라 국외 상황도 변화되고 있다. 이미 중국이 WTO회원국으로 가입절차를 밟고 있어 풍부한 인적자원과 드넓은 토지를 배경으로 농축산물을 밀어낼 가능성을 염려하여 한국, 일본, EU가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걱정이 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장사만 된다면 무슨 물건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어 숨을 곳도, 숨길 것도 없게 되었다.

지나친 염려보다는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양계산업이 뿌리를 잘 내려 기반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깊이 명심했으면 한다.

공존, 공생의 원칙 위해 버리고, 잇고, 바꾸어야 할 일들

바쁘게 살아온 20세기를 마감해야 하는 마음은 조금 착잡하다고 해야 옳을까. 20세기와 21세기가 왜 구분되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두 세기를 걸쳐 생존했으니 한편으로는 행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제 자고 나면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막이 오른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짐을 실감하고 있다.

양계업을 남이 대신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타심은 버려야 한다. 또한 양계업을 전략적으로 양성시킬 때 주워졌던 특권을 향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도 잊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방식을 사이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함을 충고하고자 한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개발되고, 사양관리 기술마저 어제의 것이 옛것이 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어 있다. 바쁘게 움직여야 그물에 고기가 찬다. 기회를 잃으면 항상 낙엽만 청소하는 꼴이 되기 쉽다.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경제단위가 달라지고 있음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소규모 생산시대에는 농가가 가장 큰 경제단위였다.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농장이 마을로, 마을에서 생활권역별로 확대되다가 이제는 집하단위 내지 대도시 소비처를 중심으로 경제단위가 정착되는 듯했는데 다시 국가 또는 국가를 묶는 지구 위치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양계인들은 양계업이 계속 어려워지고 옛날만 못하다는 푸념들을 하게 된다. 경제단위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계인들의 생각은 아직도 농장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간 다른 국가간의 경쟁자에게 양계산물 시장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전초전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터득하게 된다. 넓게 보려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원리는 이해해야 대처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우리 양계업계의 현실은 겨우 농장이 경제단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이다. 아직도 권역별 또는 지방별로 의견을 집약해야 하는 협력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어찌 이것이 남의 탓이겠는가! 시대가 변하면 주변환경도 함께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양계**